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2. 8. 19 (목)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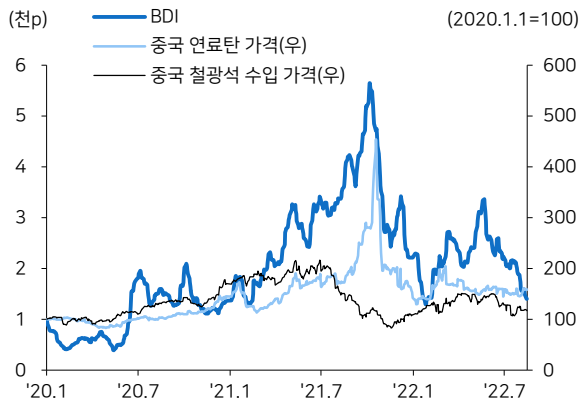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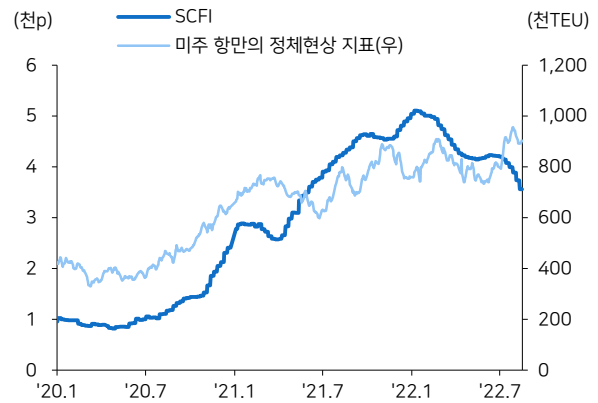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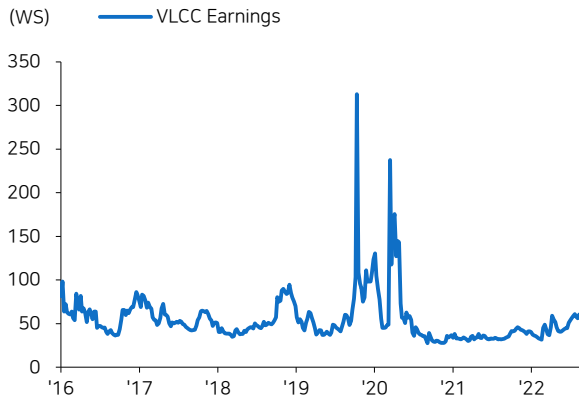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20.0p(-7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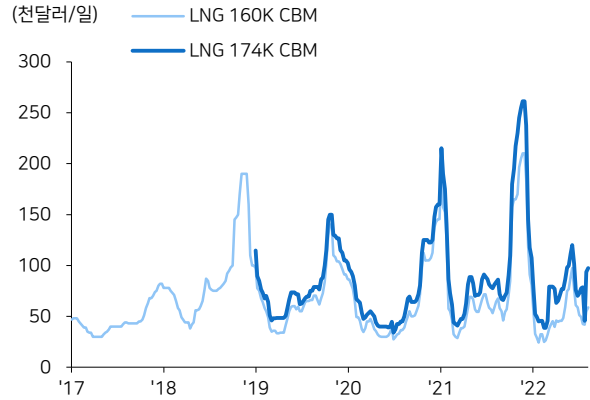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562.7p(-177.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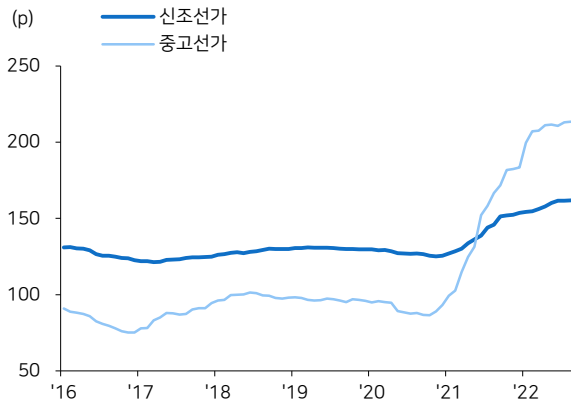
VLCC Spot Rate 60.4p(+4.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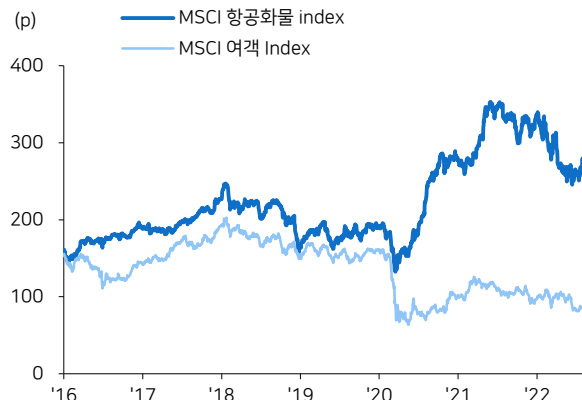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58.8p(+4.0p WoW) 97.5p(+4.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9p(+0.2p WoW) 213.3p(+0.2p WoW)



항공시장 지표 288.1p(+2.4p DoD) 90.4p(-0.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heap US crude set to fuel VLCC trade in 2023

2023년에는 미국산 원유가 브렌트유보다 저렴해지며 수출량이 폭증하고, VLCC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도됨. 유럽국가들이 러시아 원유를 미국·아시아산으로 대체하며 VLCC의 수혜는 시작되고 있음. 최근 브렌트유와 WTI의 가격차 확대로 미국 원유 수출량은 최고수준인 500만BPD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전주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Tradewinds)

Asia's LNG winter procurement activity heats up despite strengthening prices

LNG가격 상승에도 아시아의 겨울철 LNG 확보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최고 수준의 가격임에도 겨울철 공급부족을 예상하며 더 이른 시점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음. 한국과 일본이 가장 앞 단에 있고, 중국 수요는 아직 올라오지 않음. (S&P Global)

Britain to receive rare LNG cargo from Australia

영국이 호주로부터 만 6년만에 LNG수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됨. 영국 및 유럽대륙은 카타르, 미국, 페루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에서 수입한 바 있음.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바이어의 높은 수요로 인한 물량 쟁탈전 때문에 지양해 옴. 유럽의 에너지부족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됨. (Reuters)

Capesize spot rates slide 20% in a day as iron ore trade weakens

중국 철광석 수요 부진으로 Capesize 벌크선 운임 하락세가 지속되며 7개월래 최저수준으로 보도됨. Capesize 5TC는 목요일 20% 하락하며 1월말 이후 처음으로 8,000달러/일을 하회함. SSI에 따르면 중국의 7월말 누계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대비 3.5% 감소, 브라질 수출량은 5.5% 감소한 바 있음. 그러나 Clarksons에 따르면 시장둔화는 중국봉쇄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되며 하반기 성수기에 진입하며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북미서안항만 물동량 3개월만에 반등...“철송 지연은 역대 최악”

북미서안 7개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이 3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알려짐. 중국 도시 봉쇄 조치해제와 항만 적체 완화 등 대외 호재가 이어지며 연말까지 물동량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보도됨. 올해 6월 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64.1만 TEU를 기록함. 팬데믹 이전 2019년 대비 11.4% 증가한 수준임. LA항은 올해 중반까지 정박대기선박 수가 75% 감소하며 효율성이 증가했다고 언급함. 한편, 컨테이너화물 처리기간은 6월기준 전달대비 소폭 증가한 바 있음. (코리아시핑가제트)

Five-way race in \$3 billion-plus Petrobras tender for drilling rigs offshore Brazil

Petrobras의 고사양 반잠수형 굴착선/드릴십 8척 용선 입찰에 5개업체가 참여했다고 보도됨. 수요가 느리지만 건조하게 올라오며 6,7세대 리그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임. 이번 Petrobras입찰은 장기계약으로 최대 30억달러 규모로 알려짐. 2022년 12월~2023년 11월사이 브라질에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임. 3개 package로 나뉘는데, Lot1은 4년, Lot 2와 3은 3년짜리로 알려짐.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